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 국회토론회

인재근 국회의원-김광수 국회의원 주최

마취간호사회 주관-대한간호협회 후원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10월 23일 열렸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가 주관했으며,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개정 의료법이 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이에 앞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인재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

고, 3월 27일자로 공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한 김광수 국회의원은 "마취전문간호사의 현실에 맞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한 김태민 마취간호사회장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마취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정립되고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인재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2020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마련 중이며, 대한간호협회는 전담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전문간호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간호계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미 마취전문간호의 현황과 발전방안' 주제강연을 한 공미정 남부미시시피대 마취전문간호사과정 조교수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마취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현재 약 5만 4000명의 마취전문간호사가 실무를 하고 있다"면서 "마취전문간호사교육과정(석사과정) 12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모두 간호실무사자격(DNP)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이뤘다"고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서순림 경북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맡았다. 지정토론회자로 참석한 홍승령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팀장은 "전문간호사 관련 개정 의료법이 내년 3월 시행되기 전에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문간호사 관련 규정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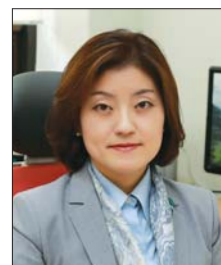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 3년마다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새로 제정돼 지난 10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은 올해 4월 23일 제정됐으며,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이번호 시행하게 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해야 한다. 실태조사에는 양성 및 공급 현황,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지역별 및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만족도 등이 포함된다.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다.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건보조, 인건절화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강윤희 이화여대 교수, 미국간호학술원 정회원 선정

강윤희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세계 간호학자들의 최고 영예인 미국간호학술원 정회원(FAAN·Fellow of American Academy of Nursing)으로 선정됐다. 미국간호학술원은 1973년 설립됐으며,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다. 간호교육·실무·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간호계의 리더를 정회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강윤희 교수는 지난 10월 24~2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간호학술원 정기총회 임원회에서 정회원으로 공식 임명됐다. 정회원은 FAAN 칭호를 사용하게 된다. 강윤희 교수는 한국 전문간호사의 교육 및 역할 정착, 글로벌 건강과 간호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교류 촉진에 기여했다. 또한 아프리카 말리위,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가의 간호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다학제적 글로벌 건강과 간호 개념을 접목해 활발히 활동한 성과를 인정



받았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중년여성 및 노인 건강프로젝트를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96편의 논문을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했으며, 19편의 저서를 출간하는 등 다양한 학술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해왔다. 강윤희 교수는 이화여대 간호학부장, 건국과학기술대학 교학부장, 임학처 부처장, 생명윤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통일간호학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이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 대한민국제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 발간

국립재활원(원장 이병석)이 장애인 여성의 임신과 출산 등 건강에 관한 한글 번역 도서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편람)'을 발간했다. 핸드북은 42개국 장애인 여성의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장애인 여성의 성장, 임신, 출산, 양육, 노화, 정신건강 등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방법, 장애인 여성이 '건강한 삶'을 꾸리는데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핸드북은 국립재활원 누리집(nrc.go.kr)을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오는 12월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전자점자도서 및 음성도서도 개발·배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올해 5월 장애인 부부를 위한 임신·

국립소록도병원, 한센인 치매 예방관리 강화

한울센터 개소 ... 조기검진부터 재활프로그램까지

국립소록도병원(병원장 박형철)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소록도 내 한센인에게 치매 예방 및 재활, 복지 증진을 위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프로그램 센터 '한울센터'를 개소했다. 소록도 내 한센인들의 88.6%가 65세 이상으로 평균 연령은 76세(2019년 8월 말 기준)에 달한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치매 관련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울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울센터는 국립소록도병원 건물을 새로 단장해 만들었다. 연면적 202㎡, 지상 1층 규모로 인지

프로그램실, 운동형 프로그램실, 사무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조기검진과 예방교육,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신체활동, 인지 증대프로그램, 전문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고령군 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맺고 웃음치료, 놀이치료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형철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울센터 개소를 통해 치매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소록도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 치매 예방 및 재활,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세희 기자 shkwon@

대한웃음임상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대한웃음임상학회(회장 박정인)는 제11차 학술대회 및 2019년 정기총회를 11월 2일 개최했다. 회원 6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웃음치료가 위장암 생존자의 우울, 불안, 피로,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웃음요법이 농촌노인의 우울, 스트레스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주제 논문이 발표됐다. '한의학 건강 그리고 웃음' '웃음치료의 최신기법' 강연이 진행됐다. 박정인 회장은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줘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웃음의 과학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경기도 수원시간사회 회원 위한 특강

경기도간호사회 산하 수원시간사회(회장 김혜경)는 회원을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근육은 더하고 지방은 빼는 밴드운동' 주제로 장안구보건소 박준모 운동처방사가 특강을 했다. 실내에서 밴드 하나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을 현장에서 시연하며 간호사들과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김혜경 회장은 "이번 특강은 항상 바쁘게 일하는 간호사들이 자신

인사 충북 청주시 상당보건소 김혜련 소장

충북 청주시 상당보건소 소장인 김혜련 서원보건소장이 임명됐다.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10월 7일자로 상당보건소장을 맡게 됐다. 김혜련 소장은 1984년 한국교통대를 졸업했다. 청주의료원에서 근무했으며, 가정전문간호사와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1988년 청주시보건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흥덕보건소에서 전염병관리담당, 상당보건소에서 의약관리담당·용암보건소소장·건강증진담당·보건정책과장, 청원보건소에서 건강증진팀장·행정운영팀장 등으로 일했다. 청원보건소소장으로 2018년 7월 9일자로 임명됐으며, 서원보건소장



을 거쳐 이번에 상당보건소장을 맡게 됐다. 김혜련 소장은 "31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와 간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ilee@

Advertisement for nursing news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and subscription details.

Large advertisement for 'Ganhohak' (Nursing Academic) featuring a testimonial and list of services. Text includes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and '간호학을 전문이기에 특별하다!'.